

성범죄 빈발... 이곳을 조심하라

정보공개 청구 통해 본 광주·전남 특별관리구역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 경보등'이 켜졌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여름철(6~8월) 성범죄만 399건에 이르고 전남에서도 무더운 여름철, 236건의 '뒤통 짓'이 벌어졌다. 광주·전남 성범죄 우범 지역은 어디일까?

◇광주·전남 14개 성폭력 특별관리구역=경찰이 꼽은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성폭력 특별 관리구역'은 광주 10곳과 전남 4곳 등 모두 14곳. 최근 3년간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심층 분석해 '성범죄 지도(地圖)'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레드존'은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촌 일대다.

561개의 원룸이 밀집한 이 일대에 서민 지난해 모두 86건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 이 일대에 CCTV가 6대 설치돼 있고 밤에는 50대의 방범등이 켜지지만 경찰은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새봄·봉곡 공

**광주 쌍촌동 원룸촌 일대
목포 하당로 일대 가장 많아
유흥가 밀집지역 제외되고
CCTV 없는 곳 많아 '허술'**

원 일대도 지난해 5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우범지역'이고 동구 금동 구시청 인근 원룸촌(50건), 광산구 우산동 저소득층 거주지 일대(44건), 화정·내방동 250개 원룸 밀집 지역(39건) 등도 경찰의 '레드존'에 포함돼 있다.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일대 원룸·모텔 운집지역(34건), 두암동 모텔촌 일대(32건), 골목길이 많은 수완지구 신가공원 인근 저층 주택 밀집 지역(32건), 북구 전대후문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30건), 남구 백운동 여성 원룸 밀집지역 일대(28건)도 경찰이

핀은 '우려지대'다. 전남에서는 목포 하당로 일대 220개의 원룸 밀집지역과 여수 봉산동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주태가, 순천시 덕월동 원룸촌, 광양시 여성 1인 원룸촌 일대가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특별관리구역'이다. 목포 성폭력 관리구역의 경우 지난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간·강제추행 2건, 강도 4건, 절도 40건, 폭력 117건 등 179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4개 지역 중 가장 많았고 광양 90건, 여수 55건, 순천 42건 등의 순이었다.

◇CCTV·방범등 늘리는 등 대책 보완해야=경찰은 광주·전남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치안 인프라는 미흡하기만 하다.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된 북구 광주역 일대 모텔 운집지역, 두암동 모텔·원룸촌 일대에는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성범죄 우범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 우산동 성폭력 관리구역과 수완지구 관리구역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비수해 광양 성폭력 관리구역에 설치된 CCTV는 41만 화소 정도에 불과, 200만~300만 화소급 CCTV에 비해 법인 식별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목포는 유흥가가 밀집한 평화광장 일대가 제외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년간 여름철(6~8월) 발생한 성범죄는 ▲2010년 195건 ▲2011년 237건 ▲2012년 399건 등 831건으로 집계됐고 전남지방경찰청은 ▲2010년 240건 ▲2011년 189건 ▲2012년 236건 등 665건의 성범죄가 여름철인 6~8월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장 '공짜 연수' 강행

시교육청, '예산편성 요구 공방' 시의회에 공식 사과
시의회 "테마연수 규정 맞게 20~30% 자부담" 제동

광주시교육청이 '선심성 무더기 공짜 연수'라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장단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테마연수는 규정에 맞게 20~30% 자부담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은 8일 광주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장단 중국연수는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것이지 선심성도 아니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일선 학교에 5·18 계기교육도 하고 현수막도 걸자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 교장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교장단 연수가 일부 교장의 역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테마연수의 성격에 맞게 연수비용 일부를 자부담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장단 중국 연수

가 같은 사업인데도 사업내역을 초등교장단테마연수(초), 학교관리자역사테마연수(중), 학교장역사문화교육체험(고) 등 3개로 분산해 예산을 편성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테마연수의 경우 자부담이 20~30% 있다"며 "사업내역을 테마연수로 편성한 초등과 중학교는 규정에 맞게 자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책임공방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공식 사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교장단 해외연수 예산을 시의회가 요구했다고 한 이계영 부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시의회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과했다.

한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교장단 공짜 해외연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위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번 공짜 연수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따르면 이번 주중 조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원침 (8855) 김장두



영광서 학생 6명 식중독

영광군의 한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소재 모 위탁교육기관 소속 학생 6명이 지난 7일 학부모가 사다준 피자·튀김이 지난 우유를 먹고 복통·두드러기 증상을 보이는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복귀했다. /영광=조익삼기자 ischo@

찜질방 못뚫기 유사강간 첫 사례발

○경찰이 찜질방에서 잠자던 50대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6)씨는 8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찜질방에서 잠자던 A(여·54)씨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 등을 수차례 만졌다는 것.

○경찰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범행 여부를 판단한 뒤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이씨가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광주 지역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성추행 초등 교장 '경징계' 추행당한 女 강사는 '퇴직'

학교 내에서 계약직 여강사를 성추행한 환경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피해 강사는 수처심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8일 환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합평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영어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C씨의 몸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B교장은 당시 업무시간에 영어센터를 찾아 C강사를 지도한다며 신체 접촉을 했고, 거부하는 C씨의 뺨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C씨는 환경교육청과 전

남도교육청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초 해당 학교를 그만뒀다. 이에 대해 8일 기자가 B 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 입장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경징계(견책)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그만뒀다 할 사람은 계속 근무하고, 오히려 피해를 본 강사만 그만뒀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함평=형문학기자 hwang@



"광주 동구 커뮤니티센터 오세요" 8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열린 동구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주민들이 센터 내에 마련된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지상 2층 규모·면적 398㎡)엔 작은 도서관·카페·차집·다목적실·공방이 들어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 질러 버리겠다" 헤어진 동거녀 사무실서 상습 협박한 40대 구속

광주광안경찰청은 8일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협박한 나모(47)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동거녀 김모(53)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불 질러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는 전남 김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김씨가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또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최근 김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죄로 징형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헬로tv 가입하시면 반값!

LG LED TV

42형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989,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가)

23형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2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라세라직 IPS패널의 Full HD LED TV

LED TV의 최상급 세로 질정 기술

헬로tv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1)}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2)}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 가입문의 1588-3450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